

벤츠 첫번째 고성능 순수 전기차 나왔다

더 뉴 메르세데스-AMG EQS 53 4MATIC+ 출시 AMG의 스포티함·EQ 패밀리 룩 조화 이룬 디자인 강력한 주행 성능·편안하고 다재다능한 주행 지원

메르세데스-AMG의 첫번째 고성능 순수 전기차가 출시됐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고성능 브랜드 메르세데스-AMG가 선보이는 최초의 고성능 전기차 '더 뉴 메르세데스-AMG EQS 53 4매틱(MATIC)+'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메르세데스-AMG EQS 53 4매틱+는 메르세데스-EQ의 최상위 전기 세단 '더 뉴 EQS'의 진보적 럭셔리 디자인, 혁신적인 디지털 요소, 최고 수준의 안전 및 편의사양 등을 모두 포함하면서 메르세데스-AMG만의 강력한 주행 성능과 독보적 감성을 추가로 탑재한 고성능 모델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우선 외관은 0.20cd를 기록한 공기역학적 '원-보우'(One-Bow) 디자인 등 '더 뉴 EQS'의 디자인을 반영함과 동시에 내·외관에 AMG만의 특징을 더했다.

디지털 라이트(DIGITAL LIGHT) 헤드램프가 기본으로 장착된 차량 전면부는 AMG 전용 블랙 패널 그릴로 외관의 고급스러움을 더했고, 그릴 측면에 AMG 레터링을 넣어 AMG의 존재감도 부각했다.

공기역학 디자인에 최적화된 22인치 AMG 멀티 스포크 경량 알루미늄 휠은 매트 블랙 컬러의 스포크

와 고풍택 립 테두리가 대비를 이루고, 레드 컬러의 브레이크 캘리퍼는 AMG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강조했다.

실내에도 AMG의 감성을 녹였다. AMG 나파(Nappa) 가죽 시트는 고급스러움을, 센터콘솔에는 AMG 카본 파이버 트림이 적용돼 감각적인 실내 분위기를 연출했다. 나파 가죽 소재의 AMG 퍼포먼스 스티어링 휠, AMG 레터링이 새겨진 AMG 플로어 매트와 도어 실 트림 등으로 품격을 높였다.

학습이 가능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탑재한 일체형 와이드 스크린 형태의 계기판 패널 'MBUX 하이 퍼스컬린'이 적용됐고, MBUX 인터리어 어시스턴트보다 직관적이고 지능적으로 차량을 조작할 수 있도록 했다.

오버헤드 컨트롤 내 모션 센서와 계기판 내 운전자가 카메라, 학습 알고리즘을 활용해 운전자 및 조수석 탑승객의 동작과 시선도 인식한다. 이 기능을 통해 독서등 및 선루프 조절은 물론, 간단한 동작으로 즐겨찾기 메뉴를 불러오거나 하차 경고 어시스트를 활성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메르세데스-AMG EQS 53 4매틱+에는 107.8kWh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됐으며, 국내 인증 기준 1



회 충전 시 최대 404km를 주행할 수 있다. 탑재된 배터리는 배선 및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모두 AMG의 특성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도록 설정됐다.

AMG 모델답게 최고 출력 484kW와 최고 토크 950Nm의 강력한 성능을 발휘, 정지상태에서 100km/h까지 가속하는 '제로백'은 3.8초다.

이밖에 최대 9도의 조향각을 지원하는 '리어 액슬 스티어링'이 기본으로 장착돼 회전반경이 소형차 수준인 11.5m로 줄어들어 대형 세단임에도 민첩하고 안정적인 조향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기본으로 적용된 '에어매틱 에어 서스펜션'은 운전 조건, 속도 및 하중에 따라 서스펜션을 자동으로 조절해 어떤 노면과 도로 상황에서도 쾌적한 승차감을 제공한다.

또한, AMG 다이내믹 셀렉트는 '슬리퍼리'(Slippery), '컴포트'(Comfort), '스포츠'(Sport), '스포츠+'(Sport+), '인디비주얼'(Individual) 등 5가지 주행 모드가 제공된다. 각 주행 모드에 맞춰 자동으로 냉각 시스템을 가동해 효



율적인 주행을 돕는다. 예를 들어, '스포츠'와 '스포츠+' 모드에서는 냉각 시스템이 더 빨리 작동하고 냉각 용량이 증가해 전력을 더 오래 유지한다.

최고 수준의 운전자 주행 보조 시스템과 다양한 편의사양도 탑재됐다.

최첨단 주행보조 시스템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플러스'에는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며 자동 속도 조절, 제동 및 출발을 지원하는 '액티브 디스턴스 어시스트 디스트로닉', 차량이 차선을 벗어나는 경우 조향을 제어해 차량을 원래 차선으로 돌리거나 스티어링 휠 진동으로 경고하는 '액티브 차

선 이탈 방지 어시스트', 편리한 주차를 돕는 '액티브 주차 어시스트', 사고 발생 이전에 위험 상황을 감지해 탑승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프리-세이프', 측면 충돌 감지 시 앞 좌석 탑승자를 보호하는 '프리-세이프 임펄스 사이드' 등이 포함된다.

더 뉴 메르세데스-AMG EQS 53 4매틱+의 부가세 포함 가격은 2억1300만원으로, 전국 64개 메르세데스-공식 전시장에서 제품 상담 및 경험 후 온라인 세일즈 플랫폼 '메르세데스-벤츠스토어'를 통해 이날부터 구매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기후변화와 에너지 빈곤 해결 위해 정부·기업 직접 나서 솔루션 도입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B20 서밋'서 기조연설

정의선(사진)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지난 1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B20 서밋 인도네시아 2022'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빈곤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직접 나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B20 서밋 2022' 기조연설에서 '에너지 빈곤 및 공정하고 질서 있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B20 서밋은 G20 정상들의 정책협의 과정에 경제계의 정책권고를 전달하기 위한 민간 경제단체 및 기업간 협의체로, G20 정상회의 직전에 개최된다.

정 회장은 이날 “전 지구적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결단과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온실가스의 주요 원인인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것은 지금까지도 쉽지 않았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가치 있는 행동에는 언제나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가 기후변화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자동차기업들은 지금 이 순간도 재생 에너지에 투자하고 있지만, 업계의 노력만으로는 이뤄낼 수 없고 모두가 협력해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기후변화만이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고 밝혔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고, 에너지 빈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문제다. 에너지 빈곤은 공동체의 안전, 건강, 복지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는 게 정 회장의 설명이다.

또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부품구매부터 제조, 물류, 운행, 폐기 및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치 사슬에서 탄소중립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기업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새로운 자원과 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글로벌 리더들의 강력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래 청정 에너지 솔루션으로서 수소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에는 공급이나 저장에 대한 제약 등 여러 장벽이 있지만 수소는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선 회장은 “재생 에너지, 수소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을 더 빨리 도입할수록 다음 세대에 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지금은 과감한 결단과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각 국 정부와 기업은 각자의 역할을 다해 전 세계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만 친환경 솔루션 도입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 회장은 “현대차그룹은 앞으로도 모두를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올바른 행동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약속하며 “지구와 우리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여정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B20 서밋에는 G20 정상과 장관급 인사들 비롯해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이사회 의장, 쟁위진 CATL 회장, 앤서니 탄 그룹 창업자 등 주요 기업인과 경제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정 회장은 기조연설에 이어 토론 패널로 참여해 '인프라, 기후, 에너지 보안을 위한 지속 가능한 금융 확장'을 주제로 다른 기업인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침수차 확인하세요

1만8000여대 등록

국토교통부는 올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침수된 차량 정보 1만8289건이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됐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침수차 불발 유통을 방지하고자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침수이력 대상 차량을 확대하는 등 차량 침수 이력 관리를 강화했다. 자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경우 기존에는 보험계

발원에서 전손(全損-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처리된 침수차 정보만 전송했지만, 9월부터 분손(分損-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치를 넘지 않는 경우) 처리된 침수차 정보까지 전송하도록 개선했다.

침수로 도로에 방치돼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 안전을 위해 견인하거나 침수피해 사실확인서를 제출 받은 침수차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침수 이력을 알 수 있게 됐다.

소비자들은 '자동차365' 홈페이지에서 매매상품용 차량에 대해 무료로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차원이 다른 경험” 그랜저 확 바뀌었다

현대차 '더 올 뉴 그랜저' 출시...가솔린 3716만원·하이브리드 4376만원

'성공의 상징'이라 불리는 그랜저가 확 바뀐 모습으로 돌아왔다. 현대자동차는 '더 올 뉴 그랜저'를 14일 출시했다.

그랜저는 1986년 최고급 세단으로 출시된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급 세단의 명성을 이어오는 모델이다.

현대차는 이번에 출시한 그랜저는 대담한 존재감과 이에 걸맞은 혁신적 신기술로 빚어낸 플래그십 세단으로, 과거부터 이어져온 신뢰와 유산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모빌리티로 전환되는 미래 가치를 담아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독보적인 상품성을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수 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개발해 온 신형 그랜저는 지난 36년간 그랜저가 쌓아온 브랜드 헤리티지 위에, 시장의 기대와期望을 뛰어넘는 첨단 신기술과 디테일이 더해진 혁신적인 모델”이라며 “지금까지의 그랜저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경험을 선사해드릴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새롭게 출시된 더 올 뉴 그랜저는 ▲2.5ℓ GDI 가솔린 ▲3.5ℓ GDI 가솔린 ▲3.5ℓ LPG ▲1.6ℓ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4가지 엔진 라인업으로 출시된다.

현대차는 파워트레인 모델 별 트림 구성이 각기 달라 사양 선택이 어려웠던 기존 선택 과정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그랜저에 트림의 기본 품목을 일치시킨 '수평형 트림구조'를 선보였다. 이에 따라 고객은 원하는 사양에 알맞은 트림을 우선적으로 고른 후 원하는 파워트레인을 선택할 수 있어 구매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랜저는 세대와 취향, 기술과 감성의 경계를



1986년 최고급 세단으로 출시된 이후 국내 대표 고급 세단의 명성을 이어오고 있는 그랜저의 완전 변경 모델 '더 올 뉴 그랜저'가 14일 출시됐다.

허무는 이미지로 재탄생했다.

그랜저는 이전 모델 대비 45mm 길어진 5035mm의 전장을 비롯해 휠베이스와 리어 오버행은 각각 10mm, 50mm를 늘려 넉넉한 공간을 확보했다.

전면부는 차별화된 고급감으로 플래그십 대형세단의 디자인 정체성과 웅장한 존재감이 강조된 것이 특징이다. 미래지향적 디자인의 '폭' 없이 연결된 수평형 LED 램프'는 DRL과 포지셔닝 램프, 방향지시등 기능이 통합된 단절감 없는 일체형 구조로 개발됐으며 고급스럽고 강건한 이미지의 파라메트릭 패턴 라디에이터 그릴과 조화를 이뤄 강력한 인상을 더했다.

측면부는 2895mm의 동급 최장 휠베이스와 롱 후드로, 프레이밍 도어와 플러스 도어 핸들을 결합한 수평형 원라인의 사이드 바디로 우아함을 표현했다.

현대차는 차별화된 전용 디자인과 사양을 갖춘 캘리그래피 트림도 구성해 남다른 고급감을

원하는 고객의 취향도 고려했다.

캘리그래피 트림은 전면부의 파라메트릭 패턴 라디에이터 그릴에 차별화된 패턴을 적용해 와이드한 이미지를 강조했고 전용 알루미늄 휠과 DLO 폴딩으로 프리미엄한 감성을 더했다.

또 18인치부터 20인치까지 총 5종의 새로운 디자인의 휠을 선보인다. 여기에 1세대 그랜저의 휠 디자인을 모티브로 한 '20인치 고위도 스포터링 휠'을 커스터마이징 옵션으로 추가해 그랜저만의 헤리티지를 강조하면서도 더욱 중후한 느낌을 더했다.

더 올 뉴 그랜저의 가격은 ▲가솔린 3716만원 ▲하이브리드 4376만원 ▲LPG 3863만원부터 시작된다. 이는 개별소비세 3.5% 기준으로, 1.6ℓ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은 세제혜택 적용 전 가격이다. 환경 친화적 자동차 고시 완료 시점 이후 가격 공개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금호타이어 '공명음 저감 타이어' 현대차 그랜저에 공급

금호타이어가 타이어 공명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인 '공명음 저감 타이어'를 현대차가 출시하는 '더 올 뉴 그랜저'에 공급한다.

14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더 올 뉴 그랜저에 '마제스티9 솔루션 TA91'과 '엑스타 PS71' 등 2개 제품(규격 245/45R 19)을 공급한다.

모두 금호타이어의 K-Silent(흡음기술)이 적용된 공명음 저감 타이어다. 두 제품 모두 금호타이어의 스테디셀러 제품으로 승차감과 정숙성을 강화시킨 고성능 프리미엄 타이어로, 타이어 내부에 폴리우레탄 폼 재질의 흡음재를 부착해 타이어 바닥면과 도로 노면이 접촉하면서 타이어 내부 공기 진동으로 발생하는 소음(공명음)을 감소시



켜 프리미엄 세단에 최적화된 제품이다.

금호타이어는 공명음 감소 효과 극대화를 위해 흡음재 형상 및 재질을 최적화한 K-Silent 기술을 적용했는데 타이어에 부착하는 흡음재의 디자

인, 면적, 폭 넓이 등을 감안한 형상 설계가 이 기술의 핵심이다.

금호타이어는 2014년 'K-Silent system'을 개발해 흡음재의 형상과 재질에 대한 국내 및 해외 특허 등록을 마친 상태이다.

김인수 금호타이어 OE영업담당 상무는 “세단의 정석이라 불리는 그랜저에 금호타이어의 독자적인 기술인 'K-Silent' 기술을 적용한 공명음 저감 타이어를 납품하게 돼 미래 모빌리티 파트너로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현대차가 추구하는 것처럼 금호타이어 또한 주행성능과 운전의 즐거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 및 제품 개발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